

1. 직장내 성희롱

장소 : 9/2일 오후3시 장항동 '속초어시장' 장소바깥쪽 테이블

인원 : 총 피해자 포함 6명

(테이블 : 김정옥, 강대훈, 백아름, 신진숙 4명 / 배상훈(가해자), 정은수(피해자) 2명)

내용 : '강대훈' 이 마두역에 아는 참치집이 있는데 거기에서 남자들끼리 술을 마시고 있으면 여자들이 와 술을 따라주고 말동무를 해주며, 팁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함, 끝남과 동시에 가해자 '배상훈'이 오른쪽에 앉아있는 피해자 '정은수'를 쏙 보며 "한번 따라봐"라는 말을 함. 농담으로 한 것이며 왜 이 이야기에 반응을 안해주냐는 말을 하며 크게 웃음. 이에 대해 성적 수치심과 여러명이 앉아있는 자리에서 모멸감을 느낌.

2. (무기 계약직) 당일해고

근로계약서에 기한이 안써져있는 무기 계약직으로 7/30일 입사를 함

성희롱이 있던 9/2일 후 더 이상 같이 근무를 하기에 어렵다고 판단한 바 , 다른 지점으로 근무하게 해달라는 말을 함

하지만, 추석이 끝나는 18일을 기준으로 다른 지점에 근무가 확정이 나면 바로 지점을 옮기는 조건 대신, 확정이 안나면 18일까지 근무를 하게 해달라고 함

하지만 본인은 들은바가 없고 본인과 관련없다라는 태도를 보이며 9/9일 오늘부로 정리하자는 당일 해고를 함

3. 임금체불

7/30일 입사함과 동시에 30일,31일 임금을 9/9일 현재까지도 임금을 하지 않음

[요약]

7월 30일 입사

8월 14일 결근

8월 21일 오전반차

9월 9일 오후3시 퇴사 (당일해고통보)

7월 급여를 8월26일에 지급하지 않음

⇒ 7월 30일부터 입사하여 업무를 봤는데 근로계약기간이 8월 1일부터인 것을 나중에 인지함

4. 노동청 신고

- 현재 노동청에서 10월 4일에 피해자 조사가 있을 예정임.
- 근로계약서를 보고 노동청 담당자가 얘기해준 것으로는 해당 사업장이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부당해고 적용은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음.
- 해당 사업장이 사업자등록번호가 조회가 안 되는 것으로 봐서는 해당 사업장의 구조상 지점장이 대표로 해석될 수도 있어서 직장내성희롱이 인정될 시에는 지점장이 과태료를 물일수도 있다는 의견이 있었음.

5. 근로계약서

표준근로계약서(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)

_____ (이하 "사업주"라 함)과(와) 정원식 (이하 "근로자"라 함)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.

1. 근로계약기간 : 2024년 8월1일부터 2025년 7월31일까지
2. 근무장소 : 일산동구 호수로 358-25 , 동문타워2차 221~222호
3. 업무의 내용 : 지점장 지원 업무 이하, 총무업무
4. 소정근로시간 : 9시 00분부터 18시 00분까지 (휴게시간 : 12시00분 ~ 13시00분)
5. 근무일/휴일 : 매주 5일(또는 매일단위)근무
6. 임금
 - 월급 : 2,500,000원
 - 인센티브 : 지점업적 MMP 1천만원 이상시 상여금 100,000원
지점업적 MMP 1천2백만원 이상시 상여금 200,000원
지점업적 MMP 1천5백만원 이상시 상여금 300,000원
 - 임금지급일 : 매월 26 일 (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)
 - 지급방법 : 근로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
(은행) 계좌번호 445302-04-084555 국민 정원식
7. 연차유급휴가
 -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
8. 사회보험 적용여부(해당란에 체크) - 미적용 시 당사자 확인 정원식 (서명)
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
9. 근로계약서 교부
 -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의 교부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함(근로기준법 제17조 이행)
10. 기 타 (추가사항은 양쪽 모두 작성)
 -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
 - 3개월 이내 퇴사 시 급여의 90% 적용 정산 지급
 - 1개월 수습기간을 포함한다. (단, 수습기간 급여차감은 없이다)

24년 8월 2일

(사업주) 사업체명 : 현대홈쇼핑GA 일산지점 (전화 : 010-8769-0729)
주 소 : 일산동구 호수로358-25 , 동문타워2차 221~222호
대 표 자 : 비상훈 (서명)

(근로자) 주 소 : 7611241 76124
연 락 처 : 0102210 2961
성 명 : 정원식 (서명)

6. 녹취록(증거자료)

- 통화 날짜 : 2024.09.09. 15:39

- 통화 시간 : 00:08:55

- 통화 내용 :

배상훈 지점장 : 여보세요

정은수 배우자 : 네 여보세요

배상훈 지점장 : 네

정은수 배우자 : 네 안녕하세요, 지점장님 저 은수 남편인데요.

배상훈 지점장 : 네, 안녕하세요. 네

정은수 배우자 : 저번에 한 번 뵈었는데

배상훈 지점장 : 네, 기억하고 있습니다. 네

정은수 배우자 : 이게 지금 제가 계속 전해 듣고만 있어가지고. 무슨 상황인지 지금

배상훈 지점장 : 네, 먼저 조금 예 예 감사합니다.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, 물론 이제 제가 그날 말실수한 부분은 있어요. 그거는 이제 남편분 입장에서는 당연히 기분이 나쁘실 거고.

정은수 배우자 : 제가 근데 그럼, 그 사항이 제가 전해 들은 게 맞는 건지.

배상훈 지점장 : 먼저 말씀을 해보세요. 어떻게 전해 들으셨는지.

정은수 배우자 : 이게 지난주 월요일 회식이라고 들었어요.

배상훈 지점장 : 네, 맞아요

정은수 배우자 : 네 거기서 지금 다른 남자 직원이 술집, 그러니까 참치집 일을 얘기하다가 거기서 참치를 먹고 있으면 술집 여자가 나오는데, 돈을 주면 거기서 뭐 술을 따라주고 말동무해준단 얘기를 들었고 그 직후에 지점장님께서 은수한테 술잔을 가리키면서 "따라봐"라고 했다고 제가 들었어요.

배상훈 지점장 : 네

정은수 배우자 : 그러면 지금 이 내용은 맞는 건가요?

배상훈 지점장 : 조금 틀리죠. 뭐 맥락은 맞긴한데, 그날 상황이. 안 계셨잖아요? 그때 있던 분들도 증인을 해주실 수 있고. 무슨 얘기냐면, 그냥 농담으로 가부장 얘기하고 그러다가 제가 약간 허세병으로, 총무님 얼굴도 안 봤습니다. 옆에서 이렇게 뭐 "한 번 따라봐" 이렇게 허세한 겁니다. 그래서 총무님이 약간 받아들이지 못하셔서 제가 바로 사과를 했고

정은수 배우자 : 아무튼 그 참치집 얘기를 하고 나서 술집 여자 나오는 얘기는 한 다음에 눈을 바라보신 건 아니시고, 그냥 "따라봐"라고 웃으면서 얘기하셨다는 거죠?

배상훈 지점장 : 그쵸. 예. 그런 부분인데 지금 뭐 녹취 돼도 상관없습니다. 저는 괜찮은데, 이게 한쪽 입장만 얘기 들으신 거잖아요. 저도 그래서 총무님이 그날 다음 날 오셔서 저한테 사과를 요청하셨고. 저는 사과를 계속했고. 진심으로 사과를 드렸고요. 그다음에 총무님께서 저한테 약간의 협박 아닌 협박으로 본부 쪽으로 보내달라고. 여기서 근무 못 하시니까. 그러면 자기도 이제 여기서 깔끔하게 마무리하고 얘기 안 하고 가겠다. 저는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렸고요. 근데 총무님이 중간에도 계속 그거 가지고 계속 얘길 하셨어요. 저한테 갑자기 "내일부터 그만두겠다." 뭐 "다음 주 수요일에 그만두겠다." 그러면서 저한테는 '얘기 안 하신다.' 그랬는데 다른 분들한테는 이 얘기를 다 하고 다녔더라고요. 총무님께서. 지금 그런 상황이고.

정은수 배우자 : "내일 그만두겠다" "다음 주에 그만두겠다"라는 얘기를 하고 다녔다고요?

배상훈 지점장 : 네

정은수 배우자 : 그 얘긴 제가 처음 들었습니다.

배상훈 지점장 : 네. 하하튼 뭐 저는 자세히 모르겠고 저도 뭐 전달해 드린 거니까.

정은수 배우자 : 네

배상훈 지점장 :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, 죄송합니다. 죄송하지만, 이 상황을 좀 더 아시면, 그때는 저한테 사과를 하셔야 될 거 같아요.

정은수 배우자 : 어떤 상황을 말씀하시는 거세요?

배상훈 지점장 : 지금 제가 이런 상황이 되게끔 만든 거는 물론 제 책임이지만, 이렇게까지 될 일이 아니잖아요? 그리고 제가 지금 배우자분하고 통화할 이유도 없잖아요. 원래는, 당사자한테 사과를 드렸고. 당사자는 받아들여셨고. 그런 상황에서 계속 저를 협박을 하시잖아요.

정은수 배우자 : 근데 지금 제가 지난주까지는 상황을 어디까지 들었냐면 은수가 일을 못 해서 퇴사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. 근데 그게 지점장님께서 하신 말이 아니라고 또 들었는데.

배상훈 지점장 : 그렇죠. 아닙니다. 저는 그런 적이 없어요.

정은수 배우자 : 그런 얘기들이 아무튼 회사 내에서 이렇게 저렇게 지금 계속 와전되고 루머로 계속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것처럼 보였고. 사실 여부를 떠나서

배상훈 지점장 : 그게 싫죠. 저도 싫고. 총무님도 원하지 않고. 그래서 좋게 좋게 저희가 마무리 할려고 했죠.

정은수 배우자 : 오늘까지로 얘기가 그럼 된 거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. 지금 그러면은 지점장님이 말씀하시는, 은수가 지금 잘못했다고 얘기하시는 부분은 어떤 건가요? 그러면요?

배상훈 지점장 : 저한테 처음에 얘기하셨던 대로 이거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고. 그 본부로 보내드리기로 했죠. 저는 그 최선을 다했고요. 그리고 내일 면접 가시고. 그래서 "내일 면접 가시고 거기서 출근하시면 될 거 같아요" 제가 그 얘긴 다 해놨습니다. 했죠? 그래서 "저희 오늘 내일까지만 하시면 좋을 거 같아요" 했더니 거기서 그럼 "자기가 탈락하면 어떡하냐?"는 거거든요. 면접에서? 근데 그거는 제 권한이 아니잖아요? 저도 여기서 총무님을 새로 구해야 되고, 지금 빨리.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자기가 거기서 떨어지면 또 여기서 "연장근무를 시켜달라"라고 요청을 하세요. 저는 그렇게 해드릴 수가 없잖아요. 그죠?

정은수 배우자 : 아무튼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죠? 지금, 아까 말씀하신 처한 상황이라고 얘기하셨던 게?

배상훈 지점장 : 네, 그래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, "지점장님 그럼, 이렇게 나오시면 안 되죠. 저도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"라고 하시고 그냥 나가셨어요. 그리고 짐 싸고 가신 거고.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

정은수 배우자 : 아무튼, 오늘 지금 정리하는 걸로 얘기되는 거는 문제가 없는 거죠? 그러면요?

배상훈 지점장 : 네.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. 서로 불편하지 않고 저는 총무님한테 사과를 분명히 드렸고. 그죠? 근데 이거 가지고 뭐 신고를 하시고. 괜찮아요. 하셔도 되는데 그럼 저도 신고를 거꾸로 합니다.

정은수 배우자 :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? 지금, 뭐 협박을 받았다는, 말씀을 하시는 거죠?

배상훈 지점장 : 협박. 무고죄 그다음 또 뭐 있죠?

정은수 배우자 : 무고죄는 뭐죠? 혹시, 제가 상황을 이해를 잘 못 했는데.

배상훈 지점장 : 그 당시 상황이 이게 성립이 되느냐 안 되느냐잖아요. 제가 성희롱이라는 게.

정은수 배우자 : 아, 지금 그것을 이제 인정하지 않겠다는 말씀으로 제가 그럼 이해해도 되는 건가요? 지금 말씀하신 게? 아까는 제가 상황을 분리해서 보려고 했어요. 상황을 분리해서 보려고 했는데

배상훈 지점장 : 근데, 저는요. 인정을 하고 안 하고 하는 문제가 아니고 총무님 하는 행동이

정은수 배우자 : 그러니까 그 이후에, 사실상 '은수가 한 행동 때문에'라고 얘기하시는데. 그거를 지금 상황이 이렇게 벌어진 것에 대한 책임이 지금 없다고 얘기하시는지를 여쭙보는 거예요.

배상훈 지점장 : 그렇죠. 당시 그 상황에 대해서는 저는 인정합니다. 제가 말실수한 부분에 대해선 인정을 합니다. 근데 그다음 상황에 대해서는 좀 총무님이 만드신 거예요.

정은수 배우자 : 그거랑 무고죄랑은 관련이 없는 걸로 제가 지금 이해가 돼서 여쭙보는 거예요.

배상훈 지점장 : 아, 네 뭐 그니까 뭐 어떻게 이해하시든지 그거는 괜찮습니다. 제 입장에서는 저도 응대를 해야 되니까. 대응을 해야 되니까. 근데 총무님이 자꾸 그걸로 협박을 하시니까. 저한테.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. 저는.

정은수 배우자 : 일단, 알겠습니다. 아무튼, 협박을 받으셨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고. 저도 지금 은수한테 상황을 전해

듣고, 상황 파악을 하려고 연락을 드린 거고요.

배상훈 지점장 : 네. 저는 좋게 좋게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. 서로 골치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고. 저는 총무님한테도 그 일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사과를 드릴 수 있어요. 근데 그 사과를 받지 않고 저를 자꾸 협박하시니.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.

정은수 배우자 : 오늘 제가 근데 지난주에 얘기 듣기로는. 제가 뭐 때문에 연락을 드렸냐면. 은수가 일을 못 해서 짤린 게 아니라는 거를 한 번 전체있는 자리에서 얘기하신다고 하셨어요. 그래서 그렇게 상황이 흘러가는 거로만 제가 인지를 하고 있다가, 오늘 갑자기 지금 얘기가 나와서 지금 연락을 드린 거고. 그럼 전체 있는 자리에서 사과나 뭐 상황을 설명하신 거예요? 직원들에게?

배상훈 지점장 : 다른 분들한테, 몇 번, 주요 인사들한테 했죠. 전체적으로 오늘 시간이 안 돼서 안 했고. 못 했고. 총무님이 인제 그만두시면 뭐 제가 하겠죠.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그 우리 배우자분하고 얘기할 이유는 없을 거 같아요. 근데 저도 지금 오해가 없으시길 바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.

정은수 배우자 : 예, 일단 알겠습니다. 저도 지금 상황 파악하려고 연락을 드린 거고. 지난주에 있었던 일로 계속 지금 아무튼, 온 가족이 지금 다 신경이 곤두서 있어요. 아무튼

배상훈 지점장 : 네, 저도 제 가족이, 온 가족이 신경이 쓰고 있습니다.

정은수 배우자 : 네, 그렇겠죠. 근데 지금 아무튼 난리도 아닌 난리가 계속 지금 계속 생기고 있는 중에 계속 저도 신경을 쓰고 있었고. 아무리 뭐 배우자 뭐 남남도 아니고. 상황을 저도 이제 확인하려고 연락을 드린 거니까.

배상훈 지점장 : 네, 일단 이해합니다.

정은수 배우자 :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거 같고요. 일단, 알겠습니다. 오늘 아무튼, 오늘 정리한 거는 이렇게 뭐 그냥 정리하는 거로 제가 알고 있겠습니다

배상훈 지점장 : 네 알겠습니다

정은수 배우자 : 네 감사합니다.